

2018년도 표어
『열매를 맺는 교회』
(행 2:47)

NEW
순복음Life
제29호

발행일 : 2018 . 9 . 2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씩 체험함으로써
나를 많이 사랑해주시며 나를 많이 위로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리하신 주님을 알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달의 간증>

-박순옥 성도-

안녕하세요.

당진순복음교회 아들 셋 준희, 재민, 우진이 엄마 박순옥 성도입니다.

제 소개를 하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을 접하게 된지 이제 만으로 2년밖에 안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하나님께 조금씩 기도으로써 다가가며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성도이지요.

이런 저에게 간증을 써 달라는 부탁말씀을 듣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간증이 뭔지도 잘 모르고 간증을 어찌 하는지도 모르는 저에게는 생소하고 갑작스럽기도 했지만 저도 이제 어엿하게 하나님의 구원 받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자녀로 살아가기에 간증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몇 글자 적어보려 합니다.

우선 간증이란 단어부터 알아야 간증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간증이란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다군요. 이제 간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체험했던 일을 몇 자 적어봐야 겠네요.

어렸을 적부터 저희 가정은 종교가 불교였어요. 그렇다고 완전하게 믿고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절에 가서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간간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어릴 적 성탄절에 과자선물 세트 준다는 말에 혹해서 몇 번 친구 따라 가본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완전하게 믿는 건 아니었죠. 교회에 대한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없었던 터라 별로 개의치 않았었구요. 하지만 제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금이라도 일찍 믿기 시작했다면.. 이라는 후회의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에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간증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진이 출산할 때 임신 순간부터 출산과정까지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임신 5개월 때 전치태반이라는 병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전치태반 이라함은 뱃속에서 아기 옆에 태반이 자리를 잘 잡고 정상적인 위치에 아기가 있어야 하는데 정상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지 못한 것이 전치태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궁 입구에 태반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자연분만이 어렵고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데 출산과정에서 아이가 위험하고 출혈이 많이 심할 것이라는 의사에 소견이 있어서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아니길 바라면서 태반이 온전히 정상적인 자리를 잡아 자연분만 할 수 있길 위해 중보기도도 하며 매일 성전에 올라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셨는지 임신 막달이 될 때까지 전치태반으로 놔두셨고 결국 대학병원에서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우진이를 위해서라면 어디서든 건강하게 낳게만 해달라고 기도했죠. 또 두려움과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족 중 누구 한사람도 몸과 마음 다치지 않을 안전한 출산이 이루어지길 기도도 했죠. 단국대학병원으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뿐입니다. 우진이 낳는 과정에서 수술실로 가기 전 누워있는 저에게 의사가 그러더군요. 척추마취를 한 후 아이를 꺼내고 그 후에 태반제거술을 해야 해서 출혈이 심할 수도 있으니 수면마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출혈이 너무 심하고 태반이 자궁에 붙어서 태반 제거하다가 안되면 자궁까지 드러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상황 보가며 수술 방법이 달라 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맥주사, 동맥주사, 이것저것.. 양쪽 팔에 주사바늘 6개를 꼽고는 수액 6개를 달았죠. 그 과정을 보며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때 제가 찾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이었기에 내겐 너무나도 절실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했죠. 마음 평안히 아이가 건강하고 자궁적출도 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척추마취를 했습니다. 척추마취를 하고 아이를 꺼내는데.. 우진이를 보여주더라고요.

순간 울컥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를 고백했죠. 그리고는 수면 마취를 하게 되었는데.. 기억이 안나겠죠? 잠드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요.. 깨어나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더군요.

출혈도 심했고 태반적출이 힘들었다고...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서 자궁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과 함께 의사 선생님께도 감사하다고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힘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마음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진이 출산과정에서 많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에 관한 일입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계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원들의 시기와 질투로 남편의 계장 직급을 내리고 사원으로 만들려고 남편 조원들 중 일부가 남편이 본인들 위주로 편의를 봐 주는 것이 아닌 회사 사정에서 편의만 봐준다면 남편을 싫어하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남편을 계장 직급에서 내리려고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고 조회를 하는데도 앞에서 ‘계장 내려가라’ 면서 막말도 서슴없이 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로 인해 금주를 하게 된 남편이 화가 나서 술을 다시 마시게 되었는데 술김에 어떤 직원에게 화가 나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잘못을 했건 안했건 욕설을 한건 잘못인데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회사에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욕했다며 녹취를 해서 경찰서에 고발까지 하더라구요. 그리고 회사에다가 계장이 욕했다며 징계처분을 원한다고 징계위원회에까지 고발 한 상태이구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만 아니고 가족만 없었다면.. 회사 그만 두고 싶다고요. 옆에서 보는 제가 더 안쓰러웠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라고는 차마 말 할 수도 없었고, 옆에서 보기에는 너무 짠하고 안쓰러웠습니다.

남편이 괴로우니 저까지 괴로워지고 아이들까지도 힘이 나질 않고 가족분위기가 매일매일 침체 되어 있었지요. 매일을 가시밭길 걷는 것처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만 한가득 안고 사는 남편을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에도 요청을 했구요. 남편 마음의 평안과 회사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했고, 남편의 조원들이 협력자가 되어서 마음 편안히 회사에 다니게 해달라고.....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남편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그래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 말고 없었습니다. 4~5개월에 걸쳐 이런 저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간섭 해 주심으로 남편의 회사가 안정을 되찾고 그 조원들을 뿔뿔이 흩으셔서 남편이랑 다른 조로 편성이 되었고, 남편의 계장직을 계속 인정 해 줌으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 기도 중 제가 아직 이루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남편이 아직 교회에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값지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니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뤄 주실 줄 믿으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보기도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중보 기도팀 모두가 열심히 기도 해 주신 덕분에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내 앞에 험난했던 고난 가운데도 마음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거지..? 자학을 하고 자책을 많이 했었어요.. 나만 힘든 것 같았고 괴롭웠고.. 지치고.. 그랬었죠..... 우울하며 살았던 지난 많은 날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씩 알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많이 위로해주시는구나.. 하고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셋을 키우는 엄마로써 한 가정의 가장에 동반자로써 박순옥! 저는 열심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 알아가기

묵묵히

늘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집사님의 모습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정현미 집사

1. 고향은 어디세요? 형제지간도 궁금해요.

고향은 강원도 태백이고, 7살 때 용인 수지로 이사 가서 결혼 전까지 그곳에서 살았어요. 형제는 두살 위 오빠가 있어요.

2. 늘 조용하신 집사님을 보면서 어릴적부터 내내 조용하셨는지 궁금했어요. 어릴 적엔 어떤 모습이셨어요?

성격은 지금이랑 똑같았던 거 같아요. 조용하고 친구들 고민 잘 들어주는 성격이요.

3. 남편과의 러브스토리가 궁금해요. 어떻게 만나셨고 어떤 만남을 가지셨는지요?

대학교 때 제 친구와 신랑친구가 친구여서 같이 만나다가 캠퍼스 커플이 되었어요. 02학번이라 학교에서 월드컵 응원했던 게 생각나네요.

4.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셨을 때 첫인상이 매우 궁금해요.

시어머님께서 친절하게 대해 주셨나요?

첫 만남은 사귄 때 친구들이랑 발일 도와주러 와서 뵈는데 친절하셨지만 걸걸포스가 있으셨어요. 일 잘 못한다고 ...^^

5. 대가족으로 살고 계신데요. 장단점을 말씀해주세요.

저희는 대가족인 듯 대가족 아닌 듯 살고 있어요.

1층은 저희식구 다섯, 2층은 이재동 집사님, 김남현 집사님, 시동생 이렇게 세분, 현관도 다르고 밥도 따로 먹고요. 반찬은 비슷해요.^^

단점은 뭐 처음부터 같이 살아서 잘 모르겠어요.

장점은 아이들 잘 봐주세요. 지금은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더 잘 봐주셔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요.

6. 시어머님께서 요리를 잘하기로 유명하신데 시어른들께서 칭찬해주신 집사님의 음식은 무엇이었는지요?

시집올 때 신부수업을 못해서 요리는 못해요. 비만 오면 부침개 안하냐고 전화 하세요.

7. 남편과 자주 대화를 나누시지요?

대화는 하는데 하다보면 싸워서요. 애들 이야기나 교회이야기는 안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신앙 회복하면 대화도 회복될 거라 믿으며 기도합니다.

8. 큰아들 영민이가 수련회 때 mvp 상을 받았어요. 영민이는 심지가 곧고 심성이 착하며 명철해 보여요. 영민 영찬 은하 세 아이들은 누구의 어떤 모습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영민이는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성향은 저를 닮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농담으로 너 돌연변이라고 제가 놀리곤 해요.

영찬이는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맘이 여리고 운동신경도 좋고요. 키까지 비슷해요.

은하는 그냥 할머니 닮았어요. ^^

9. 온 식구가 다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계시니 부러울 따름이에요.

신앙으로 푹푹 뭉친 집사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 한 가지만 들려주세요.

다른 가정도 똑같겠지만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날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이쁠 따름이지요~~

10. 8월의 실천표어는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라’ 입니다. 집사님은 무엇을 재건해야 하시지요?

요즘 교회 가는 횟수가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들어요. 늘릴 수는 없지만 제 마음만은 항상 교회로 향하길 원합니다.

11. 에스더 회장으로써 금년도가 반년이 더 지난 지금 말고 있는 기관의 칭찬할 점과 보완할 점을 말씀해주세요.

회장을 맡았지만 회장 일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임원들과 회원들이 항상 교회에 모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서로 양보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 부러울 따름이지요. 저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속속 신입회원들이 들어올 예정인데 서로서로 잘 화합하는 에스더가 되길 원합니다.

12. 내 인생에 남편이란 (뭇난이 내 사랑)이다.

애칭이에요. 미울 때도 있지만 (같이 살아가야 할 동반자)

13. 멀리서 교회 다니기 쉽지 않으시지요? in 당진의 생각은 없으신지요?

처음에는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반반이에요. 아이들도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신랑도 저도 직장이 가깝고요. 교회는 남들보다 20분 먼저 움직이면 되고 지금은 별로 어려움 없을 정도로 적응했어요.

14. 무엇이든 처음이 있어요. 처음을 경험하려면 도전을 거쳐야 하지요.
집사님 인생의 기억나는 도전을 들려주세요.

첫 번째 도전은 결혼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가정을 만든다는 게 큰 도전이었어요. 이정도면 성공 아닌가요?

두 번째는 울동 선교단 제의를 받았을 때요. 제가 진짜 몸치거든요. 그런데 영민이가 제 유전자를 받아서...미안할 정도예요.

세 번째는 지금 직장요. 난생 처음 구한 직장이라 할 줄 아는 것도 하나 없는 제가 성격도 좋은 편이 아니어서 고민 많이 했는데 주일 쉬는 거에 맘이 가서 결정했지요.

15. 요즘 슬슬 찬바람이 부는데 불면 가을심방을 설레는 맘으로 기다리며 준비하게 되요. 작년 가을 심방 말씀 준행하고 계신지요?

가을 심방 말씀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작년에 주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신앙에 영성을 더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딪힘이 없게 하라, 딱 제가 올해 지켜야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16. 다동이 엄마로서 학생, 청년으로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이 약해져 세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음을 볼 때 아들 둘 딸 하나의 신앙을 어떤 방법으로 지켜줄 것인지요?

찬양 중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곡이 있는데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부분만 부르면 울컥해서 완창 한 적이 없어요. 신앙 안에서 굳건히 커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집 아이들도 보고 그대로만 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소개

-정효선 집사-



딸 하나에 아들 둘을 둔 정효선 집사님께서
우리와 한 가족을 이루신지 한참 지났네요.
그래도 늦었지만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께
소개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휴먼시아에 동지를 틀고 계신 집사님은 지금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쩐지 밤 9시 넘어서 전화하니 받지 않으시
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수업이 10시 20분에 끝난다고 하십니다. 월
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는 부지런
히 공부하시는 집사님의 용기가 부럽고, 또 응원에 박수도 보내드립
니다. 정효선 집사님은 서산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곳에서 집사
직분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다 당진으로 이사 오셔서 ‘사랑의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장미라 집사님과 직장 동료로 만나 우리 교회를
소개 받고 이렇게 우리와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고 성도들의 모습이 평안하고
좋아보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적응하기 훨씬 수월했구요. 그렇게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어우러지며 맥추절 연극 연습도 하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으며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졌고 더불어 얼굴까지 환하
게 밝아 지셨습니다. 이제 교회에 더 많은 흔적이 되어지길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
시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정효선 집사님께서 무엇이든 입술로 고백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에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길 기도합
니다.



교회의 이곳저곳에는 많은 성도님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 섬김과 나눔, 교제와 감사와 눈물등... 다 표현하지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하는 흔적들입니다. 그 중에 올 상반기 가장 빛으로 남은 흔적 중 하나는 당연 마리아 여선교회의 흔적이 아니었나 합니다.

탁구 대회, 배드민턴 대회, 촌극, 자바회까지 모든 면에서 많은 준비로 모두들 깜짝 놀라게 했던 것 다들 기억하시지요? 회장님을 중심으로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각기 다른 성품들이 모여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장 아름다운 조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심 있는 섬김과 행하는 믿음으로 많은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고 도전받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마리아 여선교회 회원들을 칭찬합니다.

너희의 열심히 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으니라(고후9:2)

올해 꼭 맺고 싶은 열매~

김형진 안수집사

올 한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과 육의 강건함과 가정의 소망하는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내일 일의 걱정이 아닌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인도하소서~

이진영 권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의 되는 가정!

더불어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겠습니다. 그 기쁨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민이삭 권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열매 또한 풍성히 맺으며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충성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박두식 성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합당한 직장 and 장막의 축복...거기에 새 생명의 잉태를 허락하옵소서.

김성대 성도

올 한해 주님의 자녀로서 가족들 모두 하루하루를 공의롭게 시작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마무리 할 수 있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요한 남선 교회

* 결심과 실천에 대한 자아성찰 *

금영미 집사 (2번) -

1. 100% 2. 75% 3. 50% 4. 25%

* 이달의 결심과 실천 *

이신애 성도

저는 게으른 편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생활과 성전 밭기를 통한 기도생활을 결심하겠습니다.

감사 릴레이

이영길 장로

어둡고 험했던 세월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아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됨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헛되고 헛된 것을 찾으면서도 그것이 과연 헛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따라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는 성전에 나와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헌신과 봉사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잊지 못할 한승권 목사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 구옥순 집사

우리는 다니엘 유초등부!

여름의 막바지에 거세고 무서운 줄만 알았더니 태풍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용히 물러갔고 우리 어린이들은 계획한대로 "헌신" 이라는 주제로 8월을 잘 지냈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끝나고 헌신예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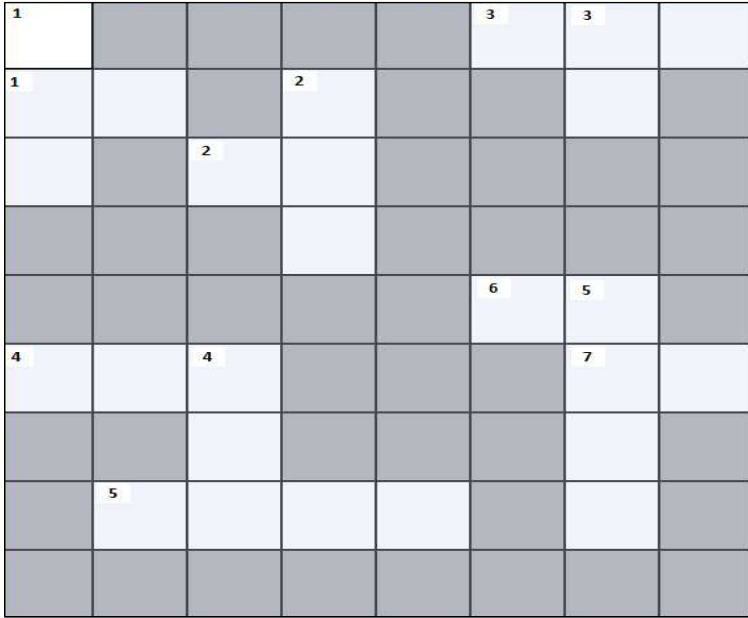
8월의 삼부순서는 헌신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운 율동도 다시 한번씩 익히고 찬양도 불러 보았습니다. 율동은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서 준비했고 특별히 특송도 준비하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또한 연극, 단체 플레시 뭉, 율동, 피아노 연주 등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개학 후에도 연습을 위해 오후4시부터 모여서 늦은 시간까지 각 파트의 연습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아이들도 잘 따라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많은 성도님들께서 맛있는 저녁도 해 주시고 각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연습에 참여 할 수 있게 협력도 잘 해주셔서 즐겁게 준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준비된 어느 때보다도 더욱 은혜 되는 헌신예배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8월 26일 주일 저녁 예배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준비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그리고 성도님들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라 생각합니다.



미스



가로

- 1.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 2.전장에서 이기는 것.
- 3.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다윗과 밋세바사이의 아들.
- 4.사람을 속이는 것.
- 5.요나단의 아들이며 다섯 살에 다리를 다침
- 6.사람의 마음이 바르고 곧음
- 7.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세로

- 1.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램,
영어로 wait
- 2.다윗 군대의 장수, 밋세바의 남편
- 3.사람과 유사한 모습과 기능을 가진 기계
- 4.제비는 제비인데 날지 못하는 제비는?
- 5.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2018년도 주일학교 헌신예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0장15절

성경 숨은그림찾기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루카 10장 27절)

[숨은그림: 토끼, 곰, 고래, 물놀이공, 고추]_____

* 사랑하니까!(1) - essay.12/-



*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잠언 3장 12절)





하계수련회
단합대회 및 침례식





<고부갈등>

조선 명종 때 실화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더욱 심해진 고부갈등으로
고민에 빠져 있던 윤진사가 하루는 그의 아내를 불렀다.



"가정불화는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오. 어머니가 얼른 세상을 떠나셔야 할텐데 아직 기운이 좋으시오. 그렇다고 병나기를 바랄수도 없잖소. 이런 생각이 불효는 되지만, 칠십 노인이 그만 사셔도 원통할 것이 없으시니 차라리 밤에 약이라도 타드려서 얼른 세상을 버리시게 하고 싶소. 그런데 고민이요. 병환이 없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외삼촌이 벼락같이 와서 원님에게 검시를 해보자고 할 것이요. 만약에 독살로 증명되면, 매일같이 불화하던 며느리의 소행으로 인정할 것인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소. 방법은 한 가지 있소. 부인이 한달 동안 거짓으로 효부의 행동을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 집 며느리는 효성스럽다"는 소문만 나게 해주시오.

그럼 그때 가서 약을 타 돌아가시게 해도 동네 여론은 이럴 것이요. "그렇게 효성스러운 며느리를 죽일 년 죽일 년 하더니 이제 동네가 다 알게 되니까 무안해서 자살했다."라는 여론이 돌아 아무 일이 없을 것이요. 그렇게 해보겠소? 아내 이씨는 그 말이 반가웠던지 "효성을 어떻게 하란 말이요." 라고 되묻는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이요. 지금이 추수 시기이니까 날마다 일꾼을 부려서 타작하는 집에 가서, 어머니께서 요새 입맛을 잃어 진지를 못 드신답니다. 그래서 일집에 맛있는 반찬 좀 얻어 갑시다." 하고 밥까지 얻어오시오. 그리고 어머니께는 "일집에 갔더니 반찬이 좋아서 얻어왔으니 맛있게 잡수세요."라고 권하면 되요. 날마다 그렇게 하면, 집집마다 당신을 효부라고 칭찬하게 될 것이요. 또 내가 생밤 한말을 사다 줄 것이요. 그 밤을 매일 10개씩만 밥에 찌서 두었다가 아이들 모르게 어머니 주무실 때에 잡숫고 주무시라고 하세요.

또 식전에 일찍이 밥 송늬를 끓여서 아침이 늦겠으니 미리 잡수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나는 만나는 친구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자랑할 것이요. 그러면 안팎이 모두 "출천대효"라고 하게 될 것이고 그 뒤에 어머니가 아무렇게나 돌아가셔도 당신에게 의심은 아니가지 않겠소?

아내 이씨가 자세히 듣더니 "그럼 생밤이나 사와요." 한다.

이튿날부터 남편이 지시한대로 철저히 실행하여 나갔다.

시어머니 김씨는, 며느리가 차차 달라져 가는 것이 고마워서 여간 잘못이 보여도 눈감아 주고 무슨 일이든 자신이 해가기 시작하였다. 날이 갈수록 기특하고 고마운 생각이 깊어져 갔다. 동네 집 잔치에 가서 국수 한 그릇만 받아도 며느리 생각이 나서 집으로 가지고 와 며느리 불러 앉히고

"네 생각이 나서 혼자 못먹겠더라."하고 같이 먹자 하였다.

어느 날은 대가 집에서 보낸 봉송음식에 굴병 한쪽이 있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손에 감추었다가 얼른 며느리 입에 넣어 주었다. 며느리 이씨는

"제일 귀한 것인데 아들과 손자도 아니 주시고 내 입에다 넣어주신다."는 생각에 감격이 넘쳐났다. 날씨만 추워도 며느리가 식전에 아침 짓기에 출겠다 싶어서 밤중에 나가서 물을 끓여 놓기도 하고,

"감기 들겠다. 옷 꺼입어라."를 날마다 했다. 어느 날 윤진사가 어머니를 위해 저고리 한 감을 사왔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방안에서 늙은이가 아무려면 어떠냐. 네가 해 입어라."하고

며느리는 "젊은 놈이야 어때요. 노인네가 따뜻하게 입어야지요."하면서 시어머니의 옷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김장을 담으려고 며느리 이씨가 식전에 저고리를 입어 보니까 자기 잠든 사이에 시어머니가 저고리를 갖다가 당신 저고리 솜을 베껴서 두툼하게 솜을 두어 놓으셨다. 개천에 가서 김장거리 씻기에 추울까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생각에, 감사에 넘치는 눈물이 솟았다.

"나는 죽일 마음으로 거짓 효성을 부린 것인데 어머니는 진실로 나를 아끼시는구나. 내가 벼락 맞을 년이다."하고 각성하였다. 그리고 한 달이 되었는데 남편이 조용한 틈에 아내를 보고

"이제는 이 근방에서 전부 당신을 효부라고 하게 되었으니 오늘 저녁 진지에 약을 타 드립시다."라고 했다. 이 말에 며느리 이씨가 울면서 말하기를 "약을 주시면 내가 먹고 죽겠소. 내가 죽일 년이요. 전일의 불화가 모두 내 죄요."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말하기를 "천하에 부모는 악한 데가 없는 법이다. 부모를 죽일 마음을 먹고 잠시 동안 거짓으로 효성을 해보아도 얼마나 부모가 착하신가? 계속 효성을 극진히 해서 자식들이 모범하게 하면 훗날 자식도 자식들의 효를 받을 것이다."하였다.

이 글은 조선 명종 때, 파평 윤씨 대언공파 8세손 윤명선의 실화이다.

시사용어 Briefing

1. 스톡옵션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수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영업이익 확대나 상장 등으로 주식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보상제도다. 채용 당시 많은 임금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사업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인재를 모을 때 많이 사용하는 제도다.

2. 애그플레이션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다.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과 인도 등에서의 수요급증,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붐으로 인해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시화에 따른 경작지 감소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공급은 줄고 있는 상태 이다. 영국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사용했다.

3. 공의 포용

매수자가 사전 경고 없이 목표 기업의 경영진에 편지를 보내 매수 제의를 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마치 공이 몰래 꺼안듯이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서 회사의 매수가격과 조건을 제시한다고 해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4. 차등의결권제도

보통주 보다 의결권을 더 많이 가진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희석시키지 않고도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 수 있는 게 장점이다.

5. 자산디플레이션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치와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의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 버블 경제 후 부동산 가격과 주가의 급격한 하락이 금융시스템의 부실로 이어져 이로 인해 실물경제의 침체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자산디플레이션 현상은 담보가치의 하락 → 금융경색 → 소비 및 투자 위축 → 경기침체 → 기업도산 증가 → 실업증대 → 자산디플레이션 심화 → 장기적 복합불황으로 이어진다.

태풍 ‘솔릭’

계속해서 불볕더위가 이어지던 8월, 여름의 막바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9호 태풍 솔릭이 만들어 졌고 이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할 것이라는 예보가 계속해서 흘러 나왔습니다. 거기다 세력도 굉장히 강해 많은 피해를 줄 것이라는 보도 또한 쉽 없이 흘러 나왔습니다. 이는



2010년 17명의 사상자를 내고 많은 재산 피해를 입힌 곰파스의 경로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풍 솔릭이 강력하고 느린 속도로 이동하면서 제주를 시작으로 거센 비와 바람을 만들어 냈고 그로인한 파도 등이 제주도를 휩쓸어 1명의 실종자가 발생했고 많은 재산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키가 큰 야자나무는 바람에 힘 없이 부러지고 옥외 광고판이 떨어지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서울을 관통할 것이며 우리가 사는 당진 또한 관통할 것이란 태풍경로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경되어 당초 예상했던 방향이 아닌 쪽으로 이동 경로가 바뀌었고 8월 23일 저녁부터 24일 새벽까지 고비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행이도 태풍의 세력이 약화 되어 내륙에 진입해 당초 예상보다 피해를 많이 입히지 않고 동해상으로 빠져 나가 소멸됐습니다.

이를 통해 **미고사축**을 한번 더 생각했습니다. 피해 입은 지역 주민에게는 **미안하고** 우리는 피해가 덜해서 **고맙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날마다 믿는 자의 편에 서서 **축복해 주시는** 주심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요, 축복받는 자녀임을 잊지 말고 날마다 기도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소개>

다말(Tamar)

뜻 : 종려나무

[1]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 결혼 후 유다의 아들들이 차례로 죽었는데 유다는 실수하여 그와 동침하였다([창 38:6](#) [롬 4:12](#) [대상 2:4](#)).

◇ 엘의 아내-- 유다의 끊어진 혈맥을 이은 지혜의 여인 다말은 유다의 장자 엘의 아내이다.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자연히 다말은 무자한 청춘과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장자가 슬하에 아들이 없이 죽을 경우 차자로 하여금 아들을 얻게 하는 고대 관혼법에 따라 유다는 시동생 오난으로 하여금 다말의 아들을 얻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오난은 다말에게서 자식이 나면 호적상 죽은 형의 아들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녀와의 정사를 회피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오난 역시 죽게 되었으며 아직 나이가 어린 셋째 아들 셀라에게 기대를 걸었으나 셀라 역시 장성한 후 형들처럼 죽을까 하여 다말을 꺼려했다. 유다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다말은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어떤 날 시아버지 유다가 덩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가장, 시아버니를 유인했다. 이로 인하여 다말이 임신한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유다는 자신을 유혹한 자부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명했다. 다말은 지혜로운 여인인지라 정을 통할 때 유다에게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약조물로 받아 간직했다가 이것을 제시함으로 유인한 자는 자부편이 아니라 시아버니 편임을 밝혔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 하였음이라도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 하였더라](창 38:26) 창세기 기자는 왜 이러한 수치스러운 불륜의 사건을 예서의 족보와 비교 하면서 수록해 놓았을까.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 역시 무슨 이유로 이러한 불륜의 여인을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족보에 삽입시켜 놓았던 말인가. 물론 다말의 행위는 영원히 불문에 붙여야 할 스캔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구원사의 측면에서 볼 때 섭리는 윤리를 초월하며 장차 오실 메시야는 죄를 덮어 주실 권리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말은 유다의 끊어진 혈맥을 이은 공로자이며 구원사를 위하여 헌신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이다.

유머~

호박국은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께서 호박국을 찾아 퍼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온지 얼마 되지 않는 어떤 성도가 친구약 성경을 열심히 이리저리 뒤적거리다. 걱정이 되는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 보아도 호박국은 없어요" 재치있는 성도가 얼른 찾아 주었습니다. 모여 있던 성도들은 모두 한바탕 까르르 웃고 말았습니다.

지옥의 유행어

지옥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닌 "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잘 믿을 꼴", "남을 미워하지 말꼴" "전도할때 잘 받아 들일 꼴"....온갖 말들이 "꼴"로 시작해서 "꼴"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역시 지옥에서도 불평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

- * 아가씨는 90%가 결혼을 꿈꾸고
아줌마는 90%가 이혼을 꿈꾼다.
- * 아가씨는 힘들수록 소심해 지지만
아줌마는 힘들수록 강해진다.
- * 아가씨는 웃 입을 때 어떻게 하면 살을
더 많이 보일까 고민하고
아줌마는 어떻게 하면 살을 더 감출까 하고 고민한다.
- * 아가씨는 거리를 걸을 때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줌마는 예쁜 여자들을 쳐다본다.
- * 아가씨는 흐린 날에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누군가 만날 약속하고
아줌마는 빨래 걱정을 한다.
- * 아가씨는 화장을 지우면 순수한 얼굴이 나타나지만
아줌마는 화장을 지우면 모든 것이 지워져도 눈썹 문신은 남는다.



우리 몸에 유익한 정보

- * 참외와 땅콩을 동시에 섭취하면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 * 단 음식은 침의 분비가 많은 식사 직후에 먹는다
- * 폐경 여성에게는 콩, 자두가 좋은 식품이다
- * 썩차 녹차 우롱차 홍차 순으로 항암 효과가 크다
- * 당뇨병에는 여주, 검은콩, 땅콩, 솔잎을 말려 분말로 복용한다
- * 뿌리채소(감자, 고구마)의 섬유질은 발암물질을 흡착해서 배변시킨다
- * 버섯류에는 몸의 산화를 막는 산화방지제가 많다
- * 콩의 비린맛(식물성 단백질 아이소플라본)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
- * 대추와 무화과 요리는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 *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멜론 등 열대과일은 냉장고에 넣지 않는다
- * 떡갈나무 잎이 냉장고의 냄새를 제거한다
- * 설사할 때는 신맛 나는 주스나 발포성음료수(콜라, 사이다 등)는 나쁘다
- * 뜨거운 음식을 즐기면 식도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 * 튼튼한 심장을 원한다면 고기, 계란, 담배, 기름기 많은 노른자, 버터 등을 제한한다
- * 고구마를 즐겨 먹으면 날씬 해 진다
- * 하체 비만형은 생야채보다 익힌 야채가 좋다
- *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땅콩이 별로 좋지 않다
- * 미역은 쌀밥을 산도의 중화, 산성식품의 과다섭취를 막는 대표적인 알카리식품이다
- *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 식초 물을 뿌려주면 변질을 늦출 수 있다.
- * 야채나 과일을 식초와 물(1:10)을 배합하여 물에 30분쯤 담가두면 농약과 중금속이 제거된다
- * 볶아둔 참깨를 사용 전 한번 더 볶으면 맛과 향이 좋아진다
- * 돼지고기와 겨자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다
- * 콩치는 칼로 토막 낸 것보다는 통째로 먹어야 제 맛이 난다
- * 위염, 위궤양에 양배추를 날것으로 보름정도 먹으면 효과가 있다

- * 육류는 냉장실, 생선, 조개류는 물에 담가 해동을 시킨다
- * 간염 환자는 평소에 음식을 잘 익혀서 먹어야 한다
- * 고사리는 브라켄톡신이라는 발암 물질 때문에 반드시 삶아 먹어야 한다
- * 당근은 잘게 자르거나 으깨면 유익한 성분인 카로틴이 급속히 산화된다
- * 밤은 속껍질과 과육에 탄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속까지 굽지 않는 것이 좋다
- * 인삼을 꿀에 재 놓으면 일종의 독소성분이 발생하므로 좋지 않다
- * 갈치는 부스럼이나 습진 등 피부염이 있을 땐 먹지 않는게 좋다
- * 파래 속에 함유된 메틸 메티오닌은 위, 십이지장궤양을 막아 주는 효과가 있다
- * 툇은 바다 식품 중 알칼리성분이 가장 풍부하지만 칼로리는 거의 없다
- * 달걀은 쇠고기보다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다
- * 식후4~5시간 후에 간식을 먹으면 두뇌활동에 도움이 된다
- * 직장인의 1일 간식은 김밥 반줄, 주스 반 컵 정도가 적당하다
- * 식후에 커피, 녹차, 홍차를 바로 마시면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
- * 당근, 풋고추, 옥수수, 쌀겨는 유방암을 예방한다
- * 마늘을 구워 매끼마다 3~5개씩 먹어라, 성인병을 예방하고 기운이 좋아진다
- * 커피나 콜라 등 카페인이 등 식품은 청소년의 성장을 억제한다
- * 부추를 먹으면 창자가 튼튼해지고 몸이 찬 사람에게 좋다
- * 올리고당이 많은 콩은 우유, 요구르트 못지않게 장내에 유익한 균 증식에 효과가 있다
- * 흰 쌀밥만 먹으면 비타민 B6가 모자라 뇌신경이 퇴화되어 치매가 생기기 쉽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중직자 헌신예배 / 9월 2일
2. 찬양예배 / 9월 9일
3. 산책여행 / 9월 13일
4. 1집사회 헌신예배 / 9월 16일
5. 2집사회 헌신예배 / 9월 30일

● 공지사항

1. 9월 생활실천표어 : 표현의 능력을 세우라
2. 9월 신앙서적 : 크리스천, 책임을 생각한다 ‘원용일’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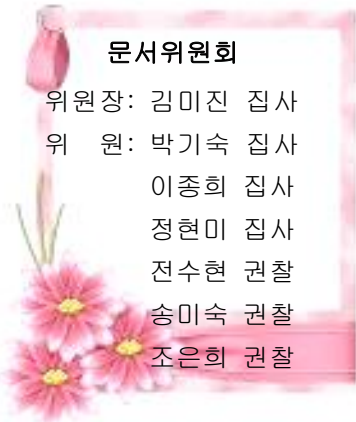
◎ 이달의 교우소식

1. 새가족 - 김은진학생, 전도 : 유진경학생, 관계 : 친구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 : 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 : 010-3066-0544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